

2023년 5월 25일 공보 2023-05-24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3년 5월 25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 차장 이화연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지속, 은행부문의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지표

		22.2/4	3/4	4/4	23.1/4	23.1월	2월	3월	4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6	3.2	2.6	1.1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3.3	0.3	0.1	1.2	2.8	-0.7	-0.7	0.4
	산업생산 ¹⁾ (전기비, %)	1.0	0.5	-0.6	-0.1	1.0	0.0	0.0	0.5
	ISM제조업 ²⁾ (기준=50)	55.0	52.2	49.1	47.1	47.4	47.7	46.3	47.1
	실업률 ¹⁾ (%)	3.6	3.5	3.6	3.5	3.4	3.6	3.5	3.4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119.7	128.7	94.8	94.8	47.2	24.8	16.5	25.3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3.7	1.5	-0.2	0.3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0.5	-0.7	-1.1	-0.4	1.0	-0.2	-1.2	..
	산업생산 ¹⁾ (전기비, %)	0.6	0.1	-0.4	-0.1	0.6	1.5	-4.1	..
	제조업PMI ²⁾ (기준=50)	54.1	49.3	47.1	48.2	48.8	48.5	47.3	45.8
	실업률 ¹⁾ (%)	6.7	6.8	6.7	6.6	6.6	6.6	6.5	..
	수출 ¹⁾³⁾ (전기비, %)	6.0	2.1	1.1	-1.3	0.7	0.5	-0.1	..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4.7	-1.0	-0.1	1.6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1.3	1.3	1.2	2.6	0.8	2.1	0.6	..
	산업생산 ¹⁾ (전기비, %)	-2.7	5.8	-3.0	-1.8	-5.3	4.6	1.1	..
	제조업PMI ²⁾ (기준=50)	53.2	51.5	49.5	48.6	48.9	47.7	49.2	49.5
	수출 ¹⁾ (전기비, %)	5.2	5.4	0.8	-6.2	-5.6	3.6	-0.7	2.5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0.4	3.9	2.9	4.5	-	-	-	-
중국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4.6	3.5	-2.7	5.8	..	3.5 ⁵⁾	10.6	18.4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0.6	4.8	2.8	3.0	..	2.4 ⁵⁾	3.9	5.6
	제조업PMI ²⁾ (기준=50)	49.1	49.5	48.1	51.5	50.1	52.6	51.9	49.2
	수출(전년동기비, %)	12.4	10.2	-6.7	0.5	-10.4	-1.3	14.8	8.5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3.9	5.2	-0.2	..	-2.1	-3.7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5) 1~2월 누계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 시사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5월 중순 이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경제지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에 영향받으며 등락하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변동하다가 상승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미국 중소형은행 리스크와 부채한도 협상,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3.1월	2월	3월	4.10일	4월	5.24일
전 세계 MSCI ¹⁾		648.4	629.0	646.8	645.6	655.0	644.8
- 선진국		2,785.0	2,714.6	2,791.4	2,786.2	2,835.9	2,788.8
- 신흥시장국		1,031.5	964.0	990.3	988.7	977.1	970.9
VIX ¹⁾		19.4	20.7	18.7	19.0	15.8	20.0
환율 ¹⁾	달러인덱스	102.1	104.9	102.5	102.6	101.7	103.9
	신흥시장국 ²⁾	51.2	50.2	50.8	50.3	50.6	50.1
	중국 ³⁾	6.76	6.94	6.88	6.88	6.92	7.05
국채금리 ¹⁾⁴⁾ (%)	미국	3.51	3.92	3.47	3.42	3.42	3.74
	독일	2.29	2.65	2.29	2.18	2.31	2.47
CDS프리미엄 ¹⁾ (bp)	브라질	231.4	230.8	226.1	234.9	221.1	216.4
	인도네시아	87.9	92.0	92.1	94.0	94.0	91.1
	한국	40.9	44.3	43.7	46.0	44.3	41.4
유가 ¹⁾⁵⁾ (달러/배럴)	WTI	78.9	77.1	75.7	79.7	76.8	74.2
	Brent	85.4	82.5	79.7	84.9	81.3	78.2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월중, 억달러)		365.1	0.0	-7.2	-9.6 ⁶⁾	62.2	99.3 ⁷⁾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미 달러화 대비
 4) 10년물 기준 5) 현물 기준 6) 3.30~4.5일 기준
 7) 4.27~5.17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파급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하회하는 1.4%로 예상되며, IT 경기 반등 시기, 중국경제 회복의 국내 파급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물경제지표

	2021	2022	22.2/4	3/4	4/4	23.1/4	23.2월	3월	(%, p, 만명) 4월 ⁶⁾
GDP 성장률 ¹⁾	4.1	2.6	0.7	0.3	-0.4	0.3	-	-	-
(민간소비)	3.7	4.3	2.9	1.7	-0.6	0.5	-	-	-
(설비투자)	9.0	-0.5	0.5	7.9	2.7	-4.0	-	-	-
(건설투자)	-1.6	-3.5	0.2	-0.2	0.8	0.2	-	-	-
소매판매액지수 ²⁾	5.8	-0.3	-1.0	0.3	-0.9	1.1	5.2	0.4	..
설비투자지수 ²⁾	9.6	3.3	-0.4	8.6	-0.2	-8.7	1.2	-2.2	..
건설기성액 ²⁾	-6.7	2.7	-0.1	0.8	4.6	6.6	5.6	-3.3	..
수출(통관) ³⁾	25.7	6.1	13.0	5.8	-10.0	-12.7	-7.6	-13.8	-14.3
- 일평균 ³⁾	(25.7)	(6.3)	(13.8)	(5.0)	(-10.6)	(-15.9)	(-16.0)	(-17.4)	(-10.5)
제조업생산지수 ²⁾	8.4	1.4	-2.2	-2.6	-6.7	-0.4	-2.7	5.7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5.0	6.7	2.9	1.7	0.1	1.2	1.4	0.2	..
소비자심리지수 ⁴⁾	103.4	95.7	101.2	89.0	88.6	91.0	90.2	92.0	95.1 [98.0]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92	81	85	78	72	66	63	70	70 [73]
취업자수 증감 ³⁾⁴⁾	36.9	81.6	88.0	78.0	60.4	39.7	31.2	46.9	35.4
고용률(원계열)	60.5	62.1	62.7	62.8	62.3	61.2	61.1	62.2	62.7
실업률(원계열)	3.7	2.9	3.0	2.5	2.6	3.2	3.1	2.9	2.8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6) []내는 23.5월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물 가]

□ 소비자물가는 4월중 상승률이 전월 4.2%에서 3.7%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를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중 3.5%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낮아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3.0%)를 상회하는 3.3%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2.2/4	3/4	4/4	23.1/4	23.2월	3월	4월 ⁴⁾
소비자물가 ¹⁾	5.4 (2.1)	5.9 (1.1)	5.3 (0.4)	4.7 (1.1)	4.8 (0.3)	4.2 (0.2)	3.7 (0.2)
▪ 농축수산물	3.6	6.8	1.9	1.7	1.1	3.0	1.0
▪ 공업제품	8.5	7.5	6.1	4.7	5.1	2.9	2.0
(석유류)	36.3	23.7	7.6	-4.1	-1.1	-14.2	-16.4
(석유류 제외)	4.5	5.1	5.9	6.1	6.1	5.9	5.4
▪ 전기·수도·가스	8.7	15.3	23.1	28.4	28.4	28.4	23.7
▪ 서비스	3.5	4.1	4.1	3.8	3.8	3.8	4.0
(공공서비스)	0.7	0.7	0.8	1.0	0.9	1.2	1.0
(개인서비스)	5.1	6.1	6.2	5.8	5.7	5.8	6.1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5	4.0	4.2	4.0	4.0	4.0	4.0
(관리물가 ²⁾ 제외)	4.1	4.8	5.0	4.7	4.7	4.7	4.6
▪ 농산물·석유류 제외	4.0	4.5	4.8	4.9	4.8	4.8	4.6
기대인플레이션율 ³⁾	3.4	4.4	4.1	3.9	4.0	3.9	3.7 [3.5]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내는 23.5월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무역수지 흐름,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종료 기대, 미 부채한도 협상 등에 따라 상당폭 동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영향받아 다소 상승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3.1월	2월	3월	4.10일	4월	5.24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33	3.80	3.27	3.19	3.29	3.38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30	3.75	3.34	3.24	3.36	3.50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3.46	3.57	3.29	3.23	3.25	3.47
CP금리 ¹⁾²⁾ (91일물, %)	4.57	4.06	4.01	4.01	4.01	4.01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4.31	4.49	4.10	3.99	4.11	4.19
(3년, BBB-, %)	10.56	10.92	10.48	10.39	10.50	10.58
KOSPI ¹⁾	2,425	2,413	2,477	2,512	2,502	2,567
원/달러 환율 ¹⁾	1,232	1,323	1,302	1,320	1,338	1,317
원/100엔 환율 ¹⁾	946	970	979	995	989	951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6.5	1.1	-0.9	0.3 ⁴⁾	0.8	2.0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4.1~10일중
5) 5.1~24일중

□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였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2.2/4	3/4	4/4	23.1/4	23.1월	2월	3월	4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31.3	30.3	14.9	19.0	7.9	5.2	5.9	7.5
▪ 대기업	9.3	12.9	9.7	7.6	6.6	0.9	0.1	3.1
▪ 중소기업	22.0	17.3	5.2	11.3	1.3	4.3	5.8	4.4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1.8	-1.3	-1.4	-8.1	-4.7	-2.8	-0.7	2.3
▪ 주택담보대출 ¹⁾	4.3	4.5	5.3	2.0	0.0	-0.3	2.3	2.8
▪ 기타대출 ²⁾	-2.6	-5.7	-6.8	-10.0	-4.6	-2.4	-3.0	-0.5
주택 매매가격 ³⁾ (%)	0.1	-0.8	-4.1	-3.4	-1.5	-1.1	-0.8	-0.5
▪ 수도권 ³⁾⁴⁾	-0.1	-1.2	-5.3	-4.1	-1.9	-1.4	-0.9	-0.5
(서울) ³⁾	0.1	-0.8	-4.1	-2.6	-1.2	-0.8	-0.5	-0.3
▪ 지방 ³⁾⁵⁾	0.2	-0.5	-3.0	-2.7	-1.2	-0.9	-0.7	-0.4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